



칭다오는 산악 트레킹부터 오션스포츠, 시티투어 등 여름여행의 다양한 옵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중국의 인기 휴양지다. 1. 칭다오를 방문한 관광객 대부분이 인증 샷을 찍는 5.4광장의 상징 '오월의 바람' 탑. 2. 칭다오 여행의 필수코스인 '천하제일산' 태산의 명물 1600계단. 3.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요트 경기가 열린 칭다오는 멋진 해변도 갖고 있다. 4. 먹방 투어의 명소 중 하나인 맥주박물관 앞 맥주로 맥주거리. 사진 | 스프링동아DB·중국 산둥성 관광국

중국의 작은 유럽 '칭다오'

산·바다·도시 그리고 맛이 있는 '가족여행지'

5·4광장과 먹방거리 필수코스
유럽식 건물 가득 색다른 풍경
매년 8월 맥주축제도 즐길거리

화사한 햇빛이 쏟아지는 해변, 짙은 녹음의 산, 아니면 현지 일상을 볼 수 있는 시티투어. 휴가철 해외 가족여행지를 고를 때 식구들이 모두 만족할 곳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과 부모의 취향이 다르고, 또 부부들도 좋아하는 곳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중국 산둥반도의 동쪽 칭다오(靑島)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취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바다를 보기 어려운 중국여행에서 멋진 해변을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가 칭다오다. 또한 내륙으로 눈을 돌리면 '천하제일산' 태산(1132m)을 비롯해 초호산, 쿠위산, 몽산, 구선산 등 절경을 자랑하는 산들이 있다. 도심에는 독일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유럽식 건물들이 남아있어 '중국의 작은 유럽'으로 불리기도 한다.

●도심관광부터 트레킹·먹방투어까지

칭다오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은 5·4광장이다. 5·4 항일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을 기념해 만든 곳이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제광장 '소리탑'에서 인증 샷을 찍듯, 칭다오를 방문한 사람들 대부분이 5.4광장 '오월의 바람' 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도심관광의 매력은 그곳 사람들의 삶의 속살을 느껴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장구경이다. 1902년 중산로에 조성된 피차이위엔 거리는 전통음식 시장으로 향구도시 칭다오의 특성을 살린 싱싱한 해산물을 주재료로 만든 각종 꼬치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이밖에 각종 유명제품의 '짜퐁'을 파는 곳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찌모루 시장도 있다.

도시 곳곳에서 해변조각공원, 칭다오 오세기공원, 샤오위산공원 등 잘 조성된 공원을 만날 수 있다. 샤오위산 공원은 시내 전경을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로 산이 높지 않고 길을 잘 가꾸어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곳에 오르면 관광명소인 잔교, 소청도, 청도 제일 해수욕장, 팔대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칭다오는 먹방투어의 명소다. 해산물 피차이위엔 거리 외에도 5·4광장 북쪽의 운소루 미식거리, 맥주박물관 앞의 등주로 맥주거리 등이 있어 저녁 때 방문해 각종 거리음식과 산동음식을 맛볼 수 있다.

시외 투어에서는 단연 태산관광이 으뜸이다. 중국 오악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태산은 칭다오 동북부에 있다. 4계절이 뚜렷하고 겨울 휴학과 여름 무더위가 없어 '신선이 사는 산'으로도 불린다. 시내에서 동쪽으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라오산에는 해안가를 따라 버스를 타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양코우와 쉼터 등의 명소가 있다.

●비행기·페리...편리한 교통편

칭다오는 항공과 해상 교통편이 모두 편리하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30분 밖에 걸리지 않고 취항 항공사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산둥항공 등 다양하다. 운항편수가 250편에 이른다.

만약 여행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페리를 타고 바다로 가는 것도 색다른 낭만을 느낄 수 있어 좋다. 인천항에서는 위동페리, 팽택항에서는 화동페리가 각각 운항한다. 17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중 위동페리는 매년 8월에 열리는 칭다오 국제맥주축제 기간에 왕복 페리와 시내 교통, 그리고 축제와 시티투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이드 투어가 포함된 원스톱 서비스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총주방장 쿠킹 클래스·목재 놀이공간...

호텔 키즈 프로그램의 진화

여름방학을 앞두고 부모들은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마다 북적거리는 시기에 기대에 부응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

아이들에게 방학을 맞아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주고 싶다면 호텔 키즈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주목하자. 요즘 호텔 키즈 액티비티는 천편일률적인 키즈 카페 스타일을 지양하고 총주방장이 나서서 쿠킹클래스부터 아트클래스, 목재 놀이공간 등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몇몇 호텔 키즈 프로그램은 투숙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총주방장과 함께 하는 쿠킹 클래스

그랜드하얏트 인천은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서머 키즈 쿠킹 클래스'를 진행한다. 호텔 총주방장 마린 루서드, 패스트리 주방장 줄리안 그레미엠티 참가해 아이들과 스위스 전통 음식 카폰스와 컵케이크를 만든다. 6세부터 11세까지 대상이며 1회 최대 12명이 참여할 수 있다. 총주방장의 서명이

담긴 수료증과 귀여운 앞치마도 선물로 증정한다.

임피리얼 펠리스 서울은 아이들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워 줄 수 있는 친환경 목재 놀이 공간 '나무숲놀이터'를 선보인다. 연회장을 목재문화진흥회와 함께 친환경 목재와 교구, 나무장난감들을 이용해 놀이 공간으로 꾸몄다. 팬백나무, 삼나무 등으로 만든 불꽃장을 포함해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원목 장난감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

그랜드힐튼 서울은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녀 동반 고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키즈 플레이룸을 2층 트라이앵글 포이에서 운영한다. 리틀타이스의 다양한 놀거리, 그림책 300권과 그림책 극장, 허니듀래빗의 소파와 테이블로 꾸며진 휴식 공간이다.

●액티비티 도우미 키즈 프로그램 주목

제주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는 8월 31일까지 '키즈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투명비치백 만들기과 조개껍데기 액자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해비치는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키즈 케어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켄싱턴 제주는 동화나라 포인포 캐리터로 꾸민 '포인포 키즈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호텔의 액티비티 도우미인 케니가 진행하는 케니의 동화나라, 케니와 만들기, 케니쇼, 유아 체육 '키즈 플레이' 등의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키즈 크래프트, 쿠킹 클래스, 마린 키즈, 케니 캠프 등의 유료 프로그램도 있다.

롯데호텔제주는 자녀 가족 여행객을 위해 아이스크림 모양의 쿠키와 쿠키로 장식한 빙수를 만드는 '신기한 아이스크림 쿠키 만들기'와 항해지도와 나침반을 직접 만들고 호텔 일대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서머 마린 캠프' 등 2종의 체험 프로그램을 8월31일까지 실시한다.

김재범 전문가

불금엔 롯데월드에서 '올나잇'

29일 밤 '쿨 썸머 나이트 파티' 개최
에버랜드는 불꽃쇼 등 야간 이벤트

파크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다. 적어도 한 여름에는 이 말이 맞을 것 같다. 장마가 끝나면 시작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대형 테마파크들이 야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최근 3년 연속 해외 입장객 100만명을 돌파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는 29일 밤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쿨 썸머 나이트 파티(사진)'를 개최한다. 스페인 해적선, 파라오의 분노, 후롤라드 등 13가지 놀이시설을 파티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롯데월드 나이트 파티의 메인 프로그램인 특별공연으로 싱어송라이터 에릭 남, 가수 자이언티가 나선다. 회전하는 홀컴에 퍼팅해 성공하면 경품을 증정하는 '미니 올림픽(골프)'을 비롯해 썸머 타투, 썸머 포토 등의 이벤트도 파크 내에서 열린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판타스틱 나이트'라는 테마로 컨버전스 아트부터 야간 퍼레이드, 팝쇼, 불꽃놀이까지 밤에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장미원에 모네, 고흐, 헤세 등 인상주의 화가들의 명화 36점을 12개 스크린과 고화질 빔 프로젝터 등으로 구현한 '빛의 미술관'을 진행한다. 매일 저녁 포시즌스 가든을 중심으로 페레이드, 멀티미디어 맴팡쇼, 불꽃쇼 등 환상적인 야간 공연이 릴레이로 열린다.

100만개의 전구를 이용한 '문라이트 페레이드'가 640m 페레이드 길을 따라 30분 동안 진행하며, 포시즌스 가든 신전 건축물에는 컬러 레이저의 초대형 맴팡쇼 '아틀란티스 어드벤처'가 10분 동안 펼쳐진다.

야간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에버랜드 40주년을 기념한 멀티미디어 불꽃쇼 '박칼린의 플레이아더 메모리'. 연가자들의 춤과 수천 발의 불꽃, 영상, 조명, 음향 등 특수효과로 구성된 무대로, 공연 중간에 에버랜드 40년 동안의 추억의 영상, 사진들을 상영한다. 김재범 전문가

저비용항공사 특가전쟁

제주항공, 15일까지 썸 이벤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LCC(저비용항공사)들의 특가 전쟁이 시작됐다.

제주항공은 이벤트 특가항공권 프로모션 '썸(JJIM)'을 6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 '썸' 항공권은 위탁수하물 없이 기내에 휴대 수하물만 들고 탈 경우 할인해주는 이벤트이다.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의 '썸'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번 하반기 프로모션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12월1일부터 2017년 5월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내선 4개 노선과 일본, 중국, 동남아, 대양주 등 국제선 28개 노선에서 진행하고 편도 기준으로 김포-제주 9900원, 인천-도쿄 3만7900원, 부산-오사카 3만2900원, 인천-세부 4만900원, 인천-괌 7만1000원 등이다.

진여어도 2016년 하반기 특가 프로모션 '진마켓'을 1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10월30일부터 2017년 3월25일 사이 운항하는 국내외 총 26개 노선이 판매대상이다. 진마켓 사이트 및 진여어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최대 86% 할인받을 수 있다. 예매 좌석은 세 차례로 나누어 오픈하는데 5일 1차 오픈을 했고, 2차 오픈은 8일, 3차 오픈은 11일이다.

김재범 전문가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MOMMY COOK
마미쿡 수제 버거&치킨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제버거!
아주 특별한 마미쿡!

2016 마미쿡을 만나면 성공하지 말입니다!
버거계의 토네이도! 마미쿡이 불어옵니다.
정통 아메리칸 수제버거 마미쿡이 여러분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마미쿡 본사만의 강력한 성공 경쟁력

- ✓ 색다른 맛과 지속적인 메뉴 개발
- ✓ 수제 버거만의 참맛을 내는 마미쿡만의 기술력
- ✓ 최고의 맛을 보장하는 과학적 조리 메뉴얼
- ✓ 창업연구 지원센터의 끊임없는 연구
- ✓ CVO 위성물류시스템으로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성공을 위한 마미쿡 버거카페의 "핵심 창업 포인트"

- ✓ 밀레니엄 세대까지도 좋아하는 편안한 인테리어로 분위기 업!
- ✓ 까다로운 엄마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색다르고 깔끔한 메뉴구성!
- ✓ 아시아 대표 면요리 추가로 낮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테이블!
- ✓ 고급 카페음료 메뉴구성으로 매출은 덤!

착한창업 Care & Cure
창업 마스터가 달려갑니다!
성공창업을 위해서라면 전국 방방곡곡 언제나 상권과 권리금 분석, 시장조사, 창업비용 조달까지 창업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가맹 문의 | 1899-3117